

일본의 새소식



나와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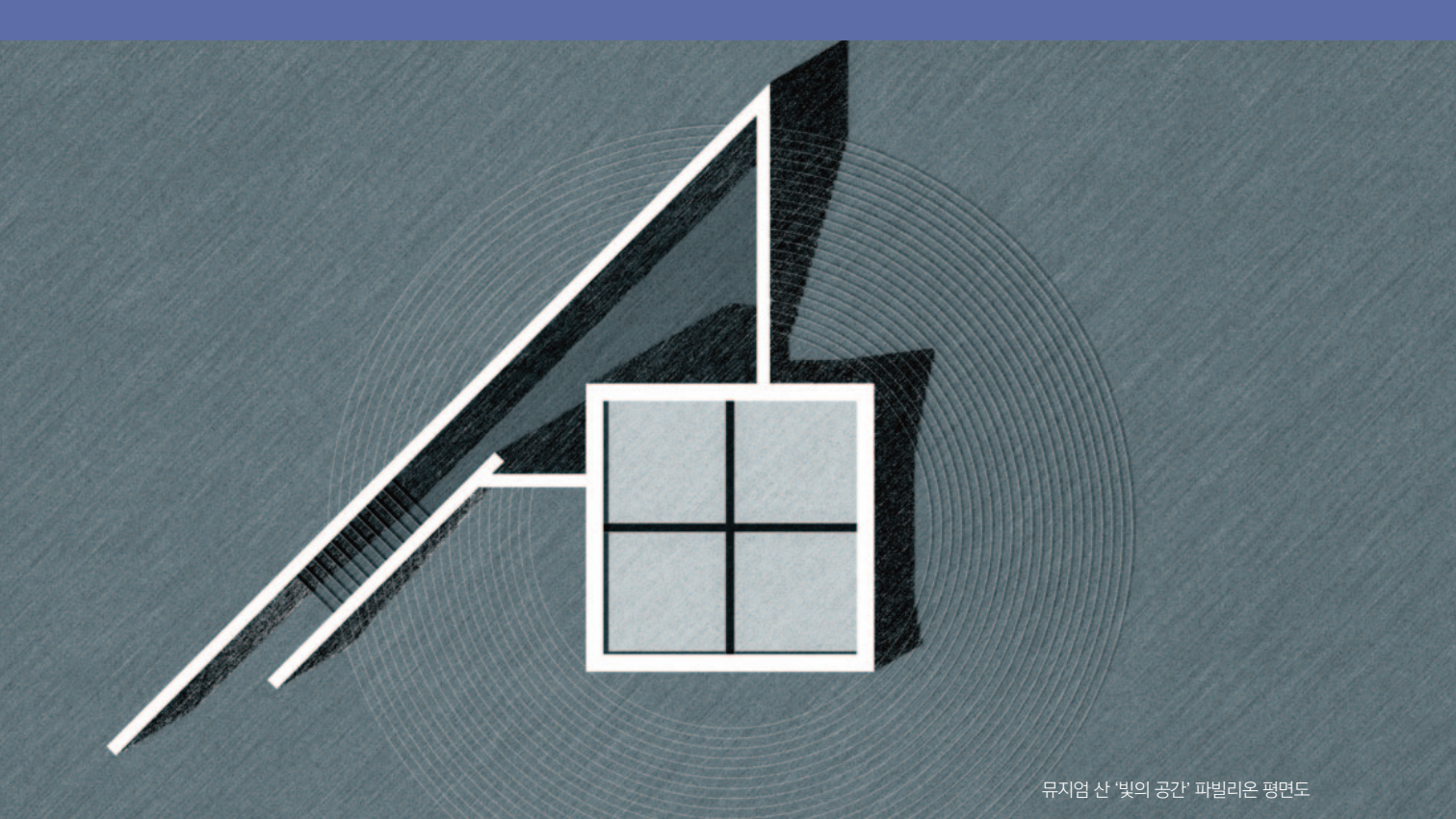
제9회 한일포토콘테스트 닷토리현상

PHOTO : CHOI HEE JOONG

<시리즈2> 한국에서 찾은 일본 건축가

한국에서 찾은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





뮤지엄 산 '빛의 공간' 파빌리온 평면도

세계 최고의 건축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의 건축가와 건축을 <시리즈 1>에서 소개했다. 이번호 부터는 '한국에서 찾은 일본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타이틀로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의 건축물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안도 다다오는 일본 오사카 출신의 건축가로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을 통해 자연의 물과 빛을 표현하는 건축가로 유명 하며 프리츠커상, 미국건축가협회 금메달 등 각종 건축상을 받았다.

* 한국에는 가평 한화인재경영원(2008년, 경기도), 제주도 유민미술관과 글라스 하우스(2008, 제주), 본태박물관(2012, 제주), 뮤지엄산 (2013, 원주), JCC ARECENTER&JCC CREATIVE CENTER(2015, 서울), 마음의 교회(2015, 여주), 엘지아트센터(2022년, 서울) 등의 작품이 있다.



Photo by Nobuyoshi ARAKI

안도 다다오(Tadao Ando, 安藤忠雄, 1941~)

1941년 오사카 출생.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한 후 1969년 안도 다다오 건축연 구소를 설립했다. 대표작으로는 빛의 교회, 아와지 유메부타이, 폴리처 미술 관, 포트워스 현대미술관, 지추미술관, 푼타델라 도가나, 상하이 폴리 대극장 등이 있다. 1979년 스미요시 주택으로 일본 건축학회상, 1993년 일본예술원 상, 1995년 프리츠커 건축상, 2002년 미국건축가협회(AIA) 금메달, 2005년

국제건축가연합(UIA) 금메달, 2010 년 일본 문화훈장, 2013년 프랑스 예술문 화훈장(Commandeur), 2015년 이탈리아 공로훈장(GRANDE UFFICIALE) 등을 수상했으며, 1991년 뉴욕 현대미 술관, 1993년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개 인전 개최, 예일, 콜롬비아, 하버드 대 학의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1997년부터 도쿄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뮤지엄 산 Museum SAN

뮤지엄 산은 해발 275m, 전체 면적 약 22,000평 규모의 원주시 오크밸리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안도 타다오가 ‘살아갈 힘을 되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설계에 담아 공사를 시작하여 빛과 공간의 예술가 제임스터렐 (James Turrell, b.1943~)의 별도 작품관 완성과 함께 2013년 5월 개관했다. 전체 길이가 약 700m에 이르며, 산 정상 특유의 뛰어난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부지를 가득 채우는 환경 일체형 건축물을 만들었다. 건축(Space), 예술(Art), 자연(Nature)을 콘셉트로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술관 본체는 기러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인 안행형(雁行型) 배치를 기본으로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동 사이에는 완충 영역으로 안도 다다오의 조형 지향을 상징하는 기하학적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2019년 1월에는 개관 5주년 기념으로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명상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6월 30일에는 안도 다다오의 대표작인 ‘빛의 교회’ 축소 버전으로 장소 특정적 성격과 관객 참여를 강조하는 파빌리온 <빛의 공간>이 조각 정원에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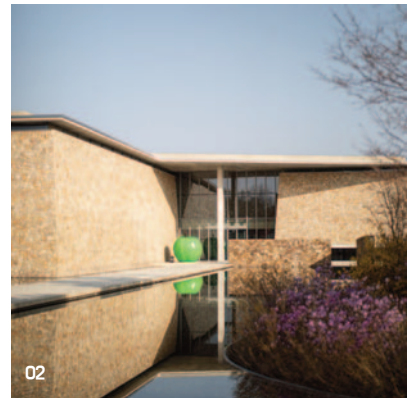
도시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난 아름다운 산과
자연으로 둘러 쌓인 아늑한 그곳에 별천지를
세우고 싶었어요.” ... 안도 타다오

01

01 뮤지엄 산 본관 항공사진

02 안도 타다오, 청춘, 2023_ © Museum SAN

03 뮤지엄 산 본관 외부



02



03

한국의 조약돌, 자갈, 모래로 만든 회색 노출콘크리트와 노르스름하고 따스한 빛깔의 파주석(자연석)의 조화로 만들어진 뮤지엄 산의 건축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각성시킬 단단한 신념과 부드러운 포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꽃, 물, 돌을 콘셉트로 한 세 종류의 자연 정원, 웰컴센터와 본관, 제임스터렐관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동선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산책하는 여유를 선물한다. 본관에는 Box in Box 형태로 사각형, 삼각형, 원형의 무(無)의 공간이 4개 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건축할 때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산세를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마치 뮤지엄을 들어서 옮겨 놓은 것 같은 풍경을 선사하며, 우리에게 자연 친화적이고 신선한 영감을 부여한다.

예술 ART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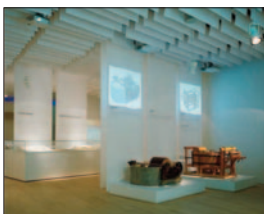


스톤 가든의 명상관(좌측 하단)

종이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맥을 잇는 국내 최초의 종이 박물관인 페이퍼 갤러리, 20세기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회화, 판화, 드로잉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청조갤러리, 자연 빛과 인공 빛의 향연이 유려하게 펼쳐지는 제임스 터렐관을 중심으로 종이와 미술의 상징적 접점을 만들어 간다. 또한 즐거운 판화 체험이 진행되는 판화 공방과 음악회와 문학 공모전 등 알찬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된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다.

페이퍼 갤러리 Paper gallery

한국 최초의 종이 전문 박물관으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10점을 소장하고 있다.



제임스 터렐관 James Turrell

21세기를 대표하는 빛과 공간의 예술가인 제임스 터렐의 대표 작품 5개를 볼 수 있는 특별 전시장이다.



James Turrell Photo © Florian Holzherr

청조갤러리 Cheongjo gallery

20세기 한국 근현대 회화, 판화, 드로잉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다.



명상관 Meditation Hall

뮤지엄 개관 5주년 기념으로 '살아갈 힘을 되찾는 장소'로 설계되었다. 공간, 자연, 예술이 전하는 여유로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연 NATURE

산 정상에 세워진 뮤지엄 산에서는 향긋한 패랭이꽃 내음, 높고 푸른 하늘이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한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정경을 뽐내는 3개 야외정원이 있다. 붉은 패랭이꽃이 그림 같은 장관을 이루는 봄과 여름, 워터가든 위로 단풍이 지는 예술적 전경을 볼 수 있는 가을, 새하얀 눈이 덮여 고성을 연상케 하는 겨울 설경 등 바람, 햇빛, 자연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잊고 느긋하게 산책은 즐길 수 있다.



워터가든 Water Garden

뮤지엄 본관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요하고 눈부신 물의 정원이다. 물에는 건물과 수목, 하늘이 반사되어 공간의 깊이와 확장감을 부여하며 물속의 해미석과 본관으로 이어진 아치웨이는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한다.



플라워가든 Flower Garden

순수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붉은 패랭이꽃과 약 180그루의 하얀 자작나무로 조성된 길이 인상 깊은 플라워가든은 자연과 예술 조각이 드넓은 공간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스톤가든 Stone Garden

경주 신라시대 고분을 모티브로 한 스톤가든은 9개의 부드러운 돌 언덕과 그 사이의 산책길을 품고 있다. 인근에서 나오는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산책길을 따라 해외 작가의 조각품을 감상하며, 대지의 평온함과 돌, 바람, 햇빛을 만끽할 수 있다.



《안도 다다오-청춘》 전시

뮤지엄 산 개관 1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청춘》 전시와 이벤트 등이 7월까지 개최된다. 전시 제목인 ‘청춘’은 안도 다다오의 건축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자 더 나은 설계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이자 인생을 대하는 그의 ‘도전 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1969년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안도 다다오의 전반기 건축 작품부터 30년에 걸쳐 완성한 나오시마 프로젝트,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공공장소에서의 건축 작품과 2020년 준공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안도 다다오의 건축세계를 망라하는 대표작 250점을 소개하고 있다. 안도 다다오는 모든 불필요함을 덜어낸 미니멀한 노출 콘크리트 건축을 선보여 왔다. 독학으로 만들어 낸 수많은 건축물은 세계 건축계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을 끄는 데도 성공했으며, 세계적인 대규모 공공건축에 참여하고 도시계획과 국토계획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그가 설계한 9곳의 한국 프로젝트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전시 연계 행사로 3월에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 강연회가 서울과 원주에서 진행되었으며, 5월에는 건축과 인문학에 대한 아티스트 토크가 개최되기도 했다.

<전시>



《안도 다다오-청춘》 제 1전시장
©Museum SAN, photo by KIM ILDA



《안도 다다오-청춘》 제 2전시장
©Museum SAN, photo by KIM ILDA



《안도 다다오-청춘》 제 3전시장
©Museum SAN, photo by KIM ILDA

<행사>



오픈 행사 1_© Museum SAN



오픈 행사 2_© Museum SAN



건축 강연회_© Museum SAN

유민미술관

풍경이 담긴 건축으로 마음이 열리는 곳

제주도 동쪽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2008년에 건축한 ‘글라스하우스’와 ‘지니어스로사이’가 있다. ‘지니어스로사이’는 명상관으로 운영되었으며, 2017년에는 유민미술관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개관했다. 안도 다다오의 연작인 두 건축물은 제주도 자연과의 조화가 두드러진다. 유민미술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글라스하우스’는 정동향을 바라보는 구조이며, 땅에서 위로 솟아오른 구조체 느낌의 건축물이다. 글라스하우스 1층 바닥은 입구보다 3.6m 높게 위치하고, 푸른 바다와 성산일출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리를 건축 재료로 사용했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에는 기하학이 반영되어 있는데, 글라스하우스의 정원은 삼각형으로 디자인되었다.



- 01 유민미술관, Jeju-do, Korea, Ando Tadao, 2008
- 02 글라스하우스, Jeju-do, Korea, Ando Tadao, 2008

유민미술관은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답게 노출 콘크리트가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다. 미술관의 콘크리트 건물은 풍경을 담은 하나의 액자가 되기도 하며, 그 안에 담긴 하늘과 등대, 돌담이 이루는 풍경에 시선이 머물게 한다. 이렇듯 그는 자연이 건축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도록 설계했다.



노출 콘크리트와 삼다의 정원



유민 미술관 전경

안도 다다오는 유민미술관에 제주도를 표현하고자 했다. 미술관의 연못은 한라산의 백록담,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은 제주도의 중산간, 벽천폭포는 해안을 표현해 설계했다. 그는 제주 섭지코지에서 ‘바다와 하나가 되는 곳,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안도 다다오는 공간을 구성할 때 한 번에 많은 것을 보여주기보다 가려놓은 부분을 마련해 최종 지점에서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삼다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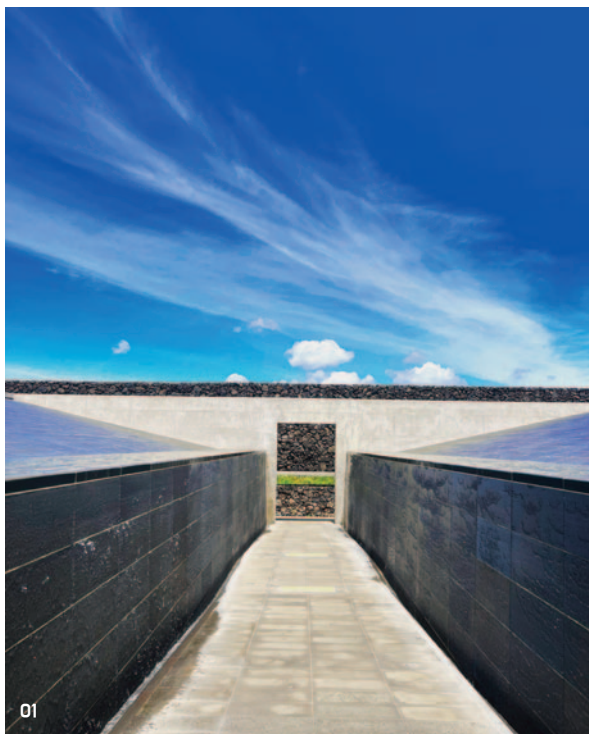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삼다도(三多道)’다. 예로부터 제주도에 많다는 돌, 여자, 바람을 주제로 ‘삼다의 정원’을 구성했다. ‘돌의 정원’은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여인의 정원’은 타원형의 테두리 안에 피어나는 꽃을 통해 제주 사람을 표현했다. ‘바람의 정원’은 노출 콘크리트가 사각의 벽을 구성하며, 입구와 출구가 일직선을 이뤄 바람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졌다. 이 공간을 걸으면 심어진 식물이 콘크리트벽에 비비지면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를 통해 제주도의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원이다.



삼다의 정원, Jeju-do, Korea, Ando Tadao, 2008

벽천폭포와 하늘길

안도 다다오는 벽천폭포를 통과하는 입구를 사각 프레임으로 설계했고, ‘Gate of the Stone’이라 이름을 붙였다. 폭포로 들어가는 이 통로는 내려갈 때는 폭포가 보이고, 반대편에 서서 바라보면 ‘삼다의 정원’이 보이는 이중 프레임 역할을 한다.



01. 02 벽천폭포, Jeju-do, Korea, Ando Tadao, 2008

03 뷰파인더, Jeju-do, Korea, Ando Tadao, 2008



이 건축물을 지나는 사람의 청각이 시원한 폭포 물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폭포 끝에서 가로로 길게 뚫린 ‘View-finder’ 창을 만나게 된다. 뷰파인더는 카메라의 초점 상태를 보기 위해 눈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을 말한다. 그는 폭포의 끝, 뷰파인더 창을 통해 아름다운 성산일출봉의 모습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게 의도했다. 안도 다다오는 좁은 공간을 더 넓은 공간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이동 동선에 변화를 준다. 폭포 밑 박스 형태의 미술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길’을 걸어가야 한다. 노출콘크리트 벽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는 현무암으로 쌓인 높은 돌담을 거쳐야 한다.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마주한 하늘은 마음 속에 경건한 느낌이 들게 한다. 그리고, 지하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 모더니즘 건축물과 상충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프랑스 아르누보 유리공예를 만나게 된다.



유민미술관 프랑스 아르누보 이야기



모더니즘 건축물 안에는 아르누보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프랑스 낭시지역의 유리공예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새로운 예술'을 의미하는 아르누보는 19C 말에서 20C 초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공예와 디자인 운동을 의미한다. 아르누보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프랑스 북동부 로렌지방 낭시지역의 유리공예가들은 고온에서 녹인 유리를 대롱으로 붙여 형태를 만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색유리를 덧씌우고, 조각하고, 부식시키는 등 새로운 공예기법을 발전시켰고, 주로 자연주의적인 소재와 영감을 표현했다. 에밀 갈레와 돔, 외젠 미셀, 르네 탈리크 등 프랑스 아르누보 미술을 이끌었던 주요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유민미술관의 대표 작품인 '버섯램프'는 에밀 갈레(1846~1904)의 최고 전성기로 평가받는 1902년 제작된 작품으로 전 세계에 5점만이 현존하고 있으며, 그중 유민미술관 전시 작품이 보존 상태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버섯램프가 전시된 '명작의 방'은 세계적으로 공간에 대해 상을 수여하는 <Inside World Festival of Interiors>에서 2018년에 상을 받은 공간이기도 하다. 또 어울리는 향기는 유리공예 작품 감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안도 다다오의 슬릿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함께 미술 서적을 여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유민미술관에서는 제주도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로 마음이 열리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유민미술관, Jeju-do, Korea, Ando Tadao, 2008



버섯램프, 에밀갈레(1846~1904), 1902

日本語で語るニッポン_성률 작가 인터뷰

7년째 적은 꿈일기 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작품으로

16th Japan
International
MANGA
Award
최우수상





여름

안에서

성률 만화

제16회 일본국제만화상에서 성률 작가의 단편만화집 <여름 안에서>가 한국 최초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77개 국가 및 지역에서 출품된 503개 작품 중 금상 1개(대한민국), 은상 3개(프랑스, 홍콩, 대만) 등 15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일본국제만화상은 외무성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화 문화를 통해 국제교류와 상호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 제정했으며, 세계의 만화 문화 발전에 기여한 아티스트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성률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작품 세계와 만화를 통한 문화교류에 대해 들어보았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성률입니다. 2020년에 만화책 <여름 안에서> 출간 이후 일러스트 작업과 다양한 개인 작업을 하며 SNS를 통해 사람들과 그림으로 소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국제만화상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이 도쿄에서 있었는데 간단하게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만화를 그리며 스스로 계속 되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장면을 모아 짜깁기하는 형식으로 만화 비슷한 것을 그리고 있었기에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마음속에서 흔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수상은 이 길을 걸어가며 불안하던 저에게 응원이 되어주었고, 조금 더 확신을 두고 앞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었습니다.

단편만화집 '여름 안에서'는 어떤 내용 인가요.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라는 녹지와 바래진 아파트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이라 재개발하기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젠가 이 풍경도 사라지겠다 싶어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 기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언젠가 이 풍경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나타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오키나와의 자연이 손에 잡힐 듯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수채화로 그리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수채화를 계속하는 이유는 단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듬뿍 발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물감을 보고 있으면 무한한 픽셀 단위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고 우연성을 가진 여러 색의 물감이 서로 섞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지는 게 항상 신기하고 좋았어요. 오키나와의 하늘은 해가 짹짹하게 내리쬘었고 바다는 눈부시게 파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구로 이 풍경을 얼른 그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초등학교 시절 여름방학이면 엄마와 함께 구청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수강하러 다녔습니다. 사실 엄마가 사 주시는 도넛을 먹기 위해 따라다녔을 뿐이었죠. 그렇게 따라다니며 배운 수업 중 하나가 만화 교실이었어요. 그때 처음 만화를 그려본 것 같아요. 당시 '디지털 어드벤처'라는 만화를 각색하여 4것으로 꾸며 그린 것이 제가 그렸던 만화에 대한 첫 기억입니다. 도넛을 먹기 위해 엄마를 따라다녔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출발해 이렇게 책을 한 권 완성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품 구상은 어떻게 하고,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나요.

조금 엉뚱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자각몽을 꾸고 싶어 7년째 꿈 일기를 적어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의외로 작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꿈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를 통해 나의 무의식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서워하는지, 꿈과 현실이 얼마나 일치하며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도 하고요. 이런 요소를 조합해 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며 재미있게 작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만화가 문화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작품의 구상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일본국제만화상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나 메시지.

애니메이션의 황금기에 자란 세대의 입장으로써 현재 저와 비슷한 세대들에게 애니메이션은 향수이자 놀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주류의 문화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한정된 영역에만 속하지 않고 음악 앨범의 재킷, 예술 작품, 혹은 패션 분야와 함께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일본 문화를 습득하기도 하고 점점 친숙해졌고 과거보다 자연스럽게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평소보다 더 큰 사이즈의 작업을 구상해 보거나 써보지 않았던 재료도 테스트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기에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본국제만화상이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저 또한 친구에게 소식을 듣고 응모했거든요. 수상도 기뻐했지만, 부상으로 주어지는 일본 문화 체험의 기회가 좋았습니다. 제 경우엔 예전부터 가부키 공연을 보고 싶어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해보았는데 무려 미나미좌 극장 일등석에서 배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표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굉장한 체험이었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기모노를 입고 100년이 가까이 된 극장에 모여 함께 공연을 즐기는 모습에 전통을 계승하고 아직도 이런 문화가 유효한 일본의 모습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쯤 응모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일본국제만화상이란

일본 외무성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화 문화를 통해 국제 교류와 상호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 제정했으며, 세계의 만화 문화 발전에 기여한 아티스트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다.

Japan International MANGA Award

<https://www.manga-award.mofa.go.jp>



오카와 노부코의 여기는 지금

일본 여성 가극단

다카라즈카의 세계



글·사진 : 오카와 노부코(大川信子)
한일축제한마당 홍보 메세나



● 오카와노부코의 ● 여기는 지금



안녕하세요. 개구리 울음소리와 함께 모내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올봄에는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거리가 온통 연분홍빛 벚꽃으로 물드는 모습도 보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 웃으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 KBS홀 벚꽃을 시작으로 압구정, 도산공원, 한강공원, 일산, 경복궁 등 가는 곳마다 활짝 핀 벚꽃을 보며 환영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제철 식재료인 매생이, 주꾸미, 두릅, 딸기, 조금 이른 참외를 맛보며 한국의 봄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는 7월부터 여름 축제가 시작되는데 작년 칼럼에서 소개한 기온마쓰리와 텐진 마쓰리도 개최 예정으로 간사이 거리는 축제 음악과 함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번호에서는 오사카 우메다에서 JR 다카라즈카선, 한큐 전철 다카라즈카선으로 갈 수 있는 교외와 다카라즈카를 소개합니다. 오사카 우메다에서 JR이나 한큐 고베 선을 타면 고베와 니시노미야 북쪽 출구에도 갈 수 있고, 난바도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창조

다카라즈카 방면은 자연이 풍부하고 온천, 골프장, 나카 야마데라와 기요시코우진 등 유명한 사찰도 있어, 고즈 녍함과 새로움이 섞인 로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오사카 미 노오 방면으로 환승하면 가쓰오지와 폭포도 볼 수 있습니다. 도톤보리의 활기를 벗어나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현지식과 함께 온천을 즐기는 것도 추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다카라즈카 패밀리랜드라는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동물원과 놀이공원이 있어, 20살 무렵까지는 자주 다카라즈카에 가서 놀았습니다. 온수 수영장장과야의 수영장, 화이트 타이거와 수족관, 식물원도 있습니다. 한큐 전철, 다카라즈카 패밀리 랜드, 한큐 백화점, 다카라즈카 가극단,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등 모두 저의 모교 창립자이기도 한 고바야시 이치조라는 사업가가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

상으로 편리하고 좋은 환경의 주택에 거주하며 백화점에서 쇼핑하거나 연극도 즐기거나, 여유롭게 생활하는 현대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도 그중 하나로 1914년 첫 공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미혼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극단입니다. ‘꽃 팀’, ‘달 팀’, ‘눈 팀’, ‘별 팀’, ‘하늘 팀’의 다섯 팀과 어느 팀에도 속하지 않은 ‘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매력적인 공연을 현장이나 영상으로 즐겨보세요. 특히 7월에는 한일 첫 협업으로 다카라즈카 가극단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업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다카라

즈카 팬 사이에서는 다카라즈카 대극장 주변을 도는 것을 성지 순례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주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에는 ‘제비꽃~♪ 펄 무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다카라즈카 역 곳곳에 짙은 보랏빛과 제비꽃무늬가 있고 사진이 잘 찍히는 장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꽃길이 있는데, 팬이 가극단 단원을 기다리거나 단원이 졸업할 때 이 꽃길이 만들어 집니다. 맛집은 물론, 다카라즈카 가극단 하면 다카라즈카 호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새로운 건물이 되고 나서 처음 방문했습니다. 구관은 1926년 창업한 공간을 대표하는 클래식 호텔로 애프터눈티를 마시거나, 친구 결혼식에 숙박차 방문했는데, 무게감이 있는 정말 멋진 호텔입니다. 새롭게 시대에 맞춰 현대화 되어 해외 고객이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카라즈카 호텔 안의 기념품 가게를 방문했는데 오리지널 과자와 협업 과자가 다양해서 놀랐습니다. 디즈니와 다카라즈카 가극단과의 협업이나 고베 명과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협업 과자 등 이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패키지는 특별한데 가격은 그 대로고 고베다운 소품까지 기념품으로 좋습니다.





데즈카 오사무 기념관

세계적인 만화가 데즈카 오사무 씨도 옛 다카라즈카 호텔 건물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데즈카 오사무 씨는 5세부터 24세까지 다카라즈카에서 자랐으며, 다카라즈카 가극단도 자주 관람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화 작품뿐만 아니라 친숙한 존재로 느끼고 있었는데, 다카라즈카 대극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데즈카 오사무 기념관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팬은 이곳에서부터 성지순례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인 방문객이 많아 한국어 팸플릿도 있었습니다. 특히 원본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데즈카 오사무 씨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일본 문화 콘텐츠 중 하나이기도 하고, 저 또한 철완 아톰은 물론, 리본의 기사나 신비한 메루모, 밀림 대제 레오, 블랙잭 등 수많은 작품을 보고 자랐습니다. 상상력과 풍요로운 세계관은 지금 봐도 알 수 있고,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만나면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모여 즐기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리본의 기사 세대로서 현관홀에 있는 그림은 밟을 수 없었습니다(웃음). 천장도 대단하니 꼭 방문해보세요. 참여형 코너도 있어 자유롭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원본 그림은 촬영이 안 되지만, 내부 곳곳에 촬영 스팟이 많아 저도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이번 호를 보실 무렵에는 ‘데즈카푸 파이팅 유니버스 CAPCOM VS. 데즈카 오사무 CHARACTERS’라는 캐릭터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참을 수 없는 전시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배가 고프면 기념관 G층으로 나와 잔디 앞 예술 센터에서 맛있는 베이글을 먹거나, 기념관 1층의 주택 사이에 있는 카페나 가게를 방문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저도 둘러봤는데, 놀라운 가격의 일본식 도시락이나 맛있는 빵집 등 주택가 안에 작은 가게가 있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테마파크 같았습니다. 한국 동생이 ‘일본스러운 카페, 찻집에 가고 싶다’고 자주 말하는데, 그야말로 일본



스러운 찻집에서 먹고 싶었던 파르페를 먹었습니다. 이 카페는 계절 과일 파르페가 유명하고 안에 들어있는 수제 아이스크림도 맛있어서 커피와 잘 어울립니다. 역시 다카라즈카! 음료 가격만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득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요즘 유행하는 ‘모에 모에 쿵’을 외치면서 사진을 찍은 것도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8월은 불꽃놀이에 맞춰 카페나 찻집에서 쉬어가면서 밤에는 불꽃놀이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역전에 가면 다카라즈카 우유와 유명한 계란 샌드위치도 있습니다.

윌킨슨 탄산과 아리마 온천까지

무코 강을 따라가다 보면 온천도 있습니다. 다카라즈카 하면 윌킨슨 탄산의 발상지인데, 창업자 존 클리포드 윌킨슨이 1889년경 탄산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천은 숙박이나 당일치기로도 즐길 수 있는데, 자동차로 야마노테 방면으로 향하면 아리마 온천 방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한큐 다카라즈카 역에서 이마즈선을 타고 니시노미야 북쪽 출구로 가서 오사카 방면, 고베 방면으로 향하는 것도 즐거울 겁니다. 한큐

이마즈선은 영화 ‘한큐 전철’에서 등장하는 짧은 노선으로 주택지를 빠져나가는 길에는 대학이 있고, 니가와역에는 한신 경마장이 있습니다. 저도 경마 중계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시절, 봄가을에는 니가와에 자주 갔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다카라즈카 가극단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이 다니는 발레 교실에도 다녔는데, 그 교실도 다카라즈카 니가와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한 획을 그은 고바야시 이치조 씨가 그린 세계 속에서, 데즈카 오사무 씨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도 자랄 것입니다. 대단한 상상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 팬, 대학생, 경마 팬이 붐비는 주말 운행은 사람으로 넘쳐나지만, 전철이 아름다워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의 봄과 오사카에서 갈 수 있는 교외 다카라즈카 성지순례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호에서 인사드릴 즈음엔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한일축제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올해는 10월 22일에 개최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설레네요. 올해 축제는 더 많은 분이 오가고 활짝 핀 미소의 꽃으로 만개할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새로운 일본 여행

도쿄에서 만나는 멋진 전망과 도심 명소



글 · 사진 : 박용준
endeva@naver.com

도쿄의 다양한 전망

오랜 역사와 다양한 풍경을 간직한 도쿄,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도쿄의 전망은 도쿄 여행의 오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도쿄는 타워나 고층 빌딩이 많으며 전망대가 있는 시설이 많다. 대부분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잘 찾아보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 명소도 가득하다. 이번에는 도쿄 여행을 더욱 알차게 해주는 도쿄의 멋진 전망대와 전망 명소를 찾아보았다.

시부야 스카이 SHIBUYA SKY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渋谷スクランブルスクエア)는 시부야역과 바로 연결되는 복합상업시설의 마천루로 지상 47층, 지하 7층, 높이 229.71m로 현재 시부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동관, 중앙동, 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동관이 먼저 개장했고, 서관과 중앙동은 2027년에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에서 13층까지는 상업시설과 레스토랑, 17~44층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기업과 공유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최고 층은 전망 시설인 시부야 스카이(SHIBUYA SKY)로 옥상이 개방되어 있어 시부야 주변과 도쿄의 전망이 한 눈에 펼쳐진다. ‘교류를 통한 새로운 탄생이 세계로’가 콘셉트로서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https://goo.gl/maps/GSuz32JyV6ztVKKe6>

01 시부야 스카에서 바라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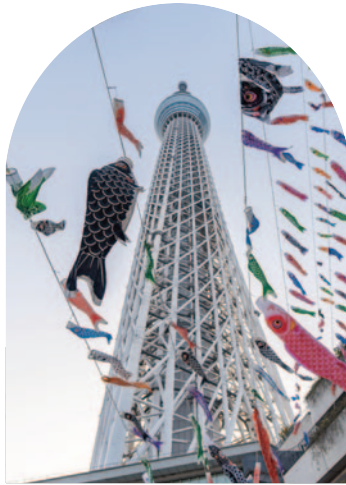
02. 03 시부야 스카이



도쿄 스카이트리 東京スカイツリー

높이 634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인 도쿄 스카이트리는 도쿄 타워에 이어 도쿄의 새로운 상징이자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사랑받고 있다. 도쿄의 모든 건물이 내려다보이며 확 트인 전망을 볼 수 있으며 두 개의 전망대로 나뉘어 있다. 스카이트리 주변은 도쿄 소라마치 상점 건물이 있어 쇼핑과 식사를 즐기기에 좋다.

<https://goo.gl/maps/zjDpZnWT7Sx2M4Hn9>



도쿄 타워 東京タワー

도쿄를 상징하는 전망대로 파리의 에펠 탑과 닮았다.

고층, 저층 두 개의 전망대로 나뉘어 있으며 가장 높은 전망대는 인기가 많아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타워 아래에는 도쿄 원피스 타워 등 다양한 테마파크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https://goo.gl/maps/QhDwesa3kgUkkb>

05-07 도쿄 스카이트리

08 도쿄 타워

09 스카이 서커스 선샤인 시티 60 전망대

10 도쿄 시티뷰





10

스카이 서커스 선샤인 시티 60 전망대 SKY CIRCUSサンシャイン60展望台

해발 251m의 선샤인 시티 60층의 전망대로 이케부쿠로와 신주쿠 등 도쿄 북부의 전망을 감상하기에 좋다. 전망대 내부는 테마파크처럼 꾸며져 있어 전망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https://goo.gl/maps/PkZV9frzrVDNQ16v9>

도쿄 시티뷰 東京シティビュー

도쿄의 가장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로 롯폰기 힐스에 있다. 도쿄 타워가 바로 옆에 내려다보이며 360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도쿄의 중심 지역이라 대부분의 지역을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다. 추가 요금으로 옥상의 야외 전망대인 스카이 데크에 입장할 수 있다.

<https://goo.gl/maps/WMrLJnuUTZn9b6wR7>

무료로 즐기는 도쿄 전망

도쿄에는 비용을 지불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망대도 많지만 단지 전망을 감상하기 위해서라면 무료로 제공되는 전망대를 찾아도 좋을 것이다. 도쿄 각 지역에는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전망 시설이 있어 좀 더 다양한 도쿄의 풍경과 만날 수 있다.

도쿄 도청 東京都庁

단게 겐조가 디자인한 도쿄의 청사로 가장 인기 있는 무료 전망대 중 하나다. 신주쿠 서쪽에 있으며 전망 시설은 남쪽과 북쪽 두 곳으로 나뉘어 있어 번갈아 가면서 공개하고 있다. 일몰 전후 시간에는 사람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https://goo.gl/maps/o49fXsiswmjd85ef8>

분쿄시빅 센터 文京シビックセンター

분쿄시빅 센터는 도쿄 돔 시티 북쪽의 도쿄 분쿄구의 구 청사 건물인데 25층을 전망대로 무료 개방하고 있다. 스카이트리, 신주쿠 고층 빌딩, 후지산 등 도쿄의 다양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https://goo.gl/maps/XNuubZC3HetbRfMe7>





11. 12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타워
17. 18 마루노우치 빌딩

13. 16 카렛타 시오도메
19. 20 캐롯타워

14. 15 타워 홀 후나보리
21-23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타워

恵比寿ガーデンプレイスタワー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의 고층 빌딩으로 38, 39층의 레스토랑 주변에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전망 라운지는 레스토랑 사이에 숨어 있으니 잘 찾아보는 것이 좋다. 도쿄 타워와 가깝고 시부야, 신주쿠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https://goo.gl/maps/WqHYVQhcbjf8cP4u8>

카렛타 시오도메 카레ッタ汐留

일본의 광고 대행사 덴츠의 건물로 46, 47층이 개방되어 있어 오다이바, 하마리큐온시 정원, 도쿄만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고속으로 전망을 감상하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재미있으며 크리스마스 전후에는 일루미네이션 쇼도 열린다.
<https://goo.gl/maps/Rsaj2vQjeDhJs6TU9>

타워 홀 후나보리 타워-홀船堀

도쿄의 서쪽 후나보리 지역의 전망 타워로 에도가와구 시민을 위한 시설로 설치되었다. 도쿄 스카이트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360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https://goo.gl/maps/wKuLdCG3RGT2mEw49>

마루노우치 빌딩 丸の内ビルディング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의 높은 빌딩 중 하나로 7층에서는 도쿄역과 도쿄역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장소가 있다. 건물 36층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함께 작은 전망 장소도 마련되어 있다.
<https://goo.gl/maps/Cu7xsbM3aUPzEFg37>



캐롯타워 キャロットタワー

시부야 서쪽의 주택가인 산젠자야 건물 27층의 라디오 방송국 겸 전망대로 도쿄의 서쪽과 서쪽에서 바라본 시내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산젠자야 서쪽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 시원한 풍경과 후지산을 감상할 수 있으며 동쪽의 시내 풍경은 시부야, 도쿄 타워를 가깝게 볼 수 있지만 행사가 있는 날에는 아쉽게도 감상할 수 없다.
<https://goo.gl/maps/2nbS9bnh9q4IL292A>

아사쿠사 문화 관광센터 浅草文化観光センター

아사쿠사 센소지 가미나리몬 앞에 있는 관광 안내소 건물로 8층에 전망시설이 있다. 도쿄 스카이트리, 센소지 등의 주변 전망을 멋지게 감상할 수 있다.
<https://goo.gl/maps/gpoDM58PkuLperBVA>





일본주(니혼슈)와 소주의 차이

사케소물리에인 추조 원장이 술을 키워드로 일본 문화와 사회를 소개한다.



집필 추조 카즈오(中條一夫)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이번호에서는
일본주(니혼슈)와
일본 소주의 차이를
난이도 순으로 10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를 알고 있나요?**



1. 원재료의 차이 (난이도 ★)

니혼슈는 쌀로 만드는데 쌀 이외의 곡물을 사용하면 니혼슈라 할 수 없습니다. 소주 원료는 다양하며 쌀, 보리, 고구마가 유명합니다. 그 밖에 메밀, 흑당, 술지게미, 참깨, 밤 등 50종류 이상의 원료가 알려져 있습니다.

2. 제조법의 차이 (난이도 ★)

니혼슈는 쌀을 발효시킨 탁주를 짜서 액체를 분리한 것으로 와인 등과 같은 양조주입니다. 소주는 찌는 게 아니라 가열해서 증발한 액체를 분리한 것으로 위스키 등과 같은 증류주입니다.

3. 알코올 도수의 차이(난이도 ★★)

보통 니혼슈의 알코올 도수는 15% 안팎, 일본 소주는 25%입니다. 이 차이가 일본인이 소주를 마시는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단, 요즘은 니혼슈, 소주 모두 다양한 도수의 제품이 있으니 라벨을 확인해 주세요.

4. 마시는 법의 차이(난이도 ★★★)

옛날에는 니혼슈를 데워서 마시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만들어 그대로 많이 마십니다. 소주는 예전에는 주로 뜨거운 물을 넣어 희석시켜 마셨는데 요즘은 (얼음과 함께) 물 또는 탄산수를 섞거나 온더록으로 많이 마십니다.

5. 생산지의 차이(난이도 ★★★★)

니혼슈 양조장은 47개 도도부현 어디나 있는데 남큐슈와 오키나와에는 적습니다. 효고현, 교토부, 니가타현이 생산량 상위를 차지합니다. 소주 증류장은 남큐슈에 많습니다.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오이타현이 생산량 상위를 차지합니다.

6. 보관법의 차이(난이도 ★★★★)

니혼슈는 장기 보관해도 부패하지 않지만 소주와 달리 당분과 아미노산을 함유해 점점 색과 풍미가 달라집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어둡고 서늘한 곳, 가능하면 냉장고에 보관하며 장기 보관은 피합시다.



7. 향의 차이(난이도 ★★★★★)

니혼슈는 보통 쌀과 누룩향이 나는 데 요즘은 효모 선택 등에 따라 과일 향이 나는 니혼슈가 인기 있습니다. 일본 소주는 쌀, 보리, 고구마 등 다양한 원료에서 유래한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9. 숙성법의 차이

(난이도 ★★★★★)

니혼슈를 숙성할 때는 온도와 시간이 중요하므로 대담한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상온에서,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싶을 때는 통이나 병에 넣어 냉장 상태로 숙성시킵니다. 소주는 통기성도 중요하므로 나무통이나 도자기 항아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8. 맛의 차이(난이도 ★★★★★)

니혼슈는 당분과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단맛, 신맛, 감칠맛, 쓴맛 등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주에는 당분과 아미노산이 들어 있지 않지만, 인간은 향에서 맛을 연상하므로 원료의 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10. 누룩곰팡이의 차이

(난이도 ★★★★★)

일본의 발효식품에는 누룩곰팡이가 활약합니다. 누룩곰팡이 중에서도 니혼슈, 된장, 간장에는 황국균을 사용하지만 소주에는 오키나와의 아와모리 같이 흑국균 및 흑국이 변이한 백국균을 사용합니다.



니혼슈, 소주 모두 일본의 전통주지만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니혼슈와 소주의 역사를 풀어가면서, 니혼슈는 일본 전역에서 만들어지는 반면 소주는 왜 남큐슈에서 많이 만들어지는지 그 수수께끼를 찾아하겠습니다.



여름 채소 다키아와세

시마무라 코타 강사가 전하는 일본 요리에
담겨있는 일본 문화를 소개한다.



집필 시마무라 코타(島村公大)

협력 나카무라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한국과 일본의 음식문화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섞는다,
섞지 않는다'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다양한 재료와 밥을
섞어 (비벼) 먹는 '비빔밥'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일본은 밥과 식재료를 함께 내는 오야코동
이나 가이센동(해물덮밥) 등의 돈부리류,
카레라이스나 지라시시 등을 섞어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키아와세란?

이번에 소개할 '다키아와세'는 섞지 않는 일본의 음식문화
를 상징하는 조림요리로, 따로 조리한 것을 하나로 합쳐
담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조림 요리는 한 냄비에 모두 넣고 가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음식인 포토티, 라
따뚜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가정식
인 장조림이나 갈비찜, 닭볶음탕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요리들도 한 냄비에서 같이 조리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에 비해 일본의 '다키아와세'는 5종류의 재료를 함께
담는다고 하면 5종류를 각각 조리합니다.

그 목적은 식재료 각각의 매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입니다. 장시간 조리함으로써 부드러운 식감을 얻고 맛있
어지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장시간 조리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사용하는 가지는 기
름과 궁합이 좋기 때문에 한 번 기름에 튀깁니다.

가지는 가열하면 식감과 색감이 상실되므로 삶지 않고 절
입니다. 단호박은 식감을 남기는 것보다 부드럽게 익히는
것이 맛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조리하지만,
시간이 너무 길거나 화력이 너무 강하면 형태가 부서져 버

리고 맙니다. 이렇듯 식재료들의 매력을 생각해서 각
각 따로 조리한 것을 마지막에 한 그릇에 담습니다.

가을이나 겨울과 같이 추운 계절에는 따뜻하게 제공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름에는 시원해 보이는 유
리그릇에 담아 차게 해서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처럼 차갑게 내는 다키아와세 요리에는 따뜻해야
맛있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각각의 재료를 맛
있게 조리하여 같이 먹었을 때 맛있는 재료들을 골고
루 조합해야 합니다.

또한, 다키아와세 요리의 맨 위에는 계절에 따라 유자
나, 기노메(산초잎), 생강, 파 등이 곁들여집니다. 이를
'덴모리'라고 하며, 향기를 더함과 동시에 '이 요리는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당신을 위해 만든 요리입
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키아와세를 가정에서 먹는 경우는 적고, 고급 일본



요리점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요리점의 주방에는 냄비의 수가 많고 가스레인지의 화구 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키아와세는 매우 손이 많이 가는 요리로 현대에 맞지 않는 면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승해 나가야 할 음식 문화와 배려가 담긴 일본의 요리입니다.



여름 채소 다키아와세 (2인분)

오리고기, 새우, 가지, 옥수수, 적 파프리카, 단호박, 방울 토마토, 줄기 콩
다양한 색상의 여름 채소를 사용합니다.



오리 고기 조림 (鴨口ス煮)

오리 가슴살 1/2장

진한 간장 30cc

연한 간장 30cc

니키리 청주 180cc

니키리 미림 30cc

*니키리란, 끓여서 알코올을 날린 것



- ① 오리 가슴살의 껍질면을 프라이팬에 구워 바트에 펼친다.
- ② 분량의 조미료를 냄비에 넣고, 끓으면 ①을 넣고 불을 끈다. 냄비에 호일을 덮어 그대로 식힌다.
- ③ 오리 고기 조림은 얇게 슬라이스 한다.

새우 조림 (海老の含め煮)



새우 2마리
생강 소량
다시 150cc
연한 간장 15cc
미림 20cc
소금 소량

- ① 냄비에 다시와 조미료, 생강을 넣고 가열한다. 끓으면 새우를 넣는다.
- ② 약불로 줄여, 새우가 익으면 불을 끄고, 냄비째 얼음물에 받쳐 식힌다. 껍질을 벗겨 2, 3등분으로 썬다.

가지 튀김 절임 (茄子の揚げ浸し)

가지 1/2개
다시 150cc
설탕 10g
진한 간장 25cc
미림 25cc



- ① 분량의 다시와 조미료를 냄비에 넣고 가열하여 끓으면 불을 끄고 차갑게 식힌다.
- ② 가지의 껍질면에 칼집을 넣고, 적당한 크기로 썬다. 165℃의 기름에 튀겨 ①에 넣는다.

옥수수 조림 (とうもろこしの含め煮)



옥수수 5cm 길이 1개
다시 150cc
소금 소량
연한 간장 5cc
미림 10cc

- ① 삶은 옥수수를 알이 흩어지지 않도록 발라 낸다.
- ② 냄비에 ①과 다시, 조미료를 넣고 가열한다. 끓으면 냄비째 얼음물에 받쳐 식혀서 적당한 크기로 썬다.

적 파프리카 조림 (赤パプリカの焼き浸し)

적 파프리카 1/2개
다시 100cc
연한 간장 10cc
미림 5cc
가쓰오부시 소량



- ① 냄비에 다시와 조미료를 넣고 가열한다. 끓으면 가쓰오부시를 넣고 그대로 식힌다.
- ② 적 파프리카를 구워 얼음물에 담근 후 껍질을 벗긴다. 체에 거른 ①에 ②를 넣어 절인다.

단호박 조림 (南瓜の含め煮)

단호박 20g x 4조각
다시 200cc
설탕 15g
진한 간장 10cc
연한 간장 10cc
미림 10cc

- ① 단호박은 먹기 좋게 썰어 모서리를 깎아 삶는다.
- ② 냄비에 다시와 조미료를 넣고 가열한다. 끓으면 불을 줄인다.
- ③ 10분 정도 약불로 조리 후 얼음물에 발쳐 식힌다.

방울 토마토 조림 (ミニトマト含め煮)

방울 토마토 4개
레몬 슬라이스 소량
다시 150cc
소금 소량
연한 간장 10cc
미림 10cc

- ① 방울 토마토는 끓는 물에 담갔다 식힌 후, 껍질을 벗긴다.
- ② 냄비에 다시와 조미료를 넣고 끓으면 ①을 넣는다. 약불로 30초 정도 조리 후, 불을 끈다. 냄비째 얼음물에 발쳐 식힌다.
- ③ ②에 레몬 슬라이스를 넣는다.

줄기콩 절임 (隠元豆の浸し)

줄기콩 2줄기
다시 100cc
연한 간장 5cc
미림 5cc
소금 소량

- ① 냄비에 다시와 조미료를 넣고 가열한다. 끓으면 식힌다.
- ② 줄기콩은 데친 후 얼음물에 담근다.
- ③ ②를 ①에 넣어 절인다.

마무리

- ① 생강은 아주 얇게 채 썬다.
- ② 그릇에 조리한 모든 재료를 보기 좋게 담은 후, 토마토나 단호박 등의 조림 국물 중 맛있는 것을 선택해 끼얹는다. ①을 덴모리로 한다.

*덴모리란?
일본요리를 담은 방법의 일종으로
조림이나 무침, 초무침 등을 담은
위에 유자, 생강 등 향이 나는 것을
가장 위에 담은 것.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동문회 소개

글·사진 :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동문회



운영위원회 소개

운영위원회는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동문의 발전과 모두의 친목을 위해 동문회를 실질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모임과 연락처DB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을 다지려 합니다. 제2대 운영위원회에서 이주원 회장, 민지홍 부회장을 선출하여 새로운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로정보교류회와 제5회 동문의 밤을 개최하고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앞으로 연락처 DB를 구축하여 동문의 진로, 생활 및 친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 관리할 예정입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 1998년 10월 8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내각총리대신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일한정상회담을 통하여 일본과 대한민국 양국간의 친목 도모, 그리고 미래 첨단과학기술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양국이 상호 장학금 등의 절반씩을 부담하여 매년 약 1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일한양국이 2019년까지 10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년, 재 연장은 성사되었으나 기존의 학부유학에서 대학원 및 단기 유학 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까지 약 2000여명의 장학생을 배출하며, 일한 양국의 든든한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동문회장 인사

교토대학교 1기 이주원

동문회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문회는 동문들이 소식을 나누고 친목을 다지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돕는 장입니다. 진로정보교류회와 동문의 밤 외에도 도움이 되고 필요한 모임을 기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접 만난 동문들은, 동문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서로의 소식이 더 많이 공유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문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야, 지역, 기수, 취미 등으로 분류하고 활용함으로써 동문들이 동문회에 참여하는 보람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교류채널 등 동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한일양국의 기관과 협력하여 동문회 활성을 위한 펀딩과 모임을 준비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문들이 근황을 공유하고, 도움이 되는 동문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문인터뷰

“1기 친구들 다들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1기 박지영



■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히타치에서 유통 분야의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의 설계 파트에 입사를 해서 거의 15년차가 되네요. 고객사의 사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용기간이 지나서 바꾸면서 시스템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진로 고민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들 똑똑한 친구들이라서 고민을 할까요? (웃음) 지금 회사에 입사한 이유가 철도 시스템 쪽에 관심이 있어서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철도 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유통분야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비록 원하던 분야가 아니었지만 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공부를 계속 하던지, 취직을 하던지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겠지만, 세상에는 정말 여러 분야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젊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너고야 동창들과 잡담 나누고 싶어요!”

2기 음영신



■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유학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외고 중국어과라 다른 친구들처럼 중국쪽으로 유학가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시험 몇달 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갑자기 알게 되었어요. 집안 사정이 여유가 없어서 유학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국비유학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고, 공대를 생각하고 있어서 일본으로 가는게 정말 좋아보여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회사와 일본회사는 어떻게 다르던가요?

각각 5년 이상씩 다녀보니, 차이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일본회사가 좀 보수적으로 느껴졌지만, 직종이 엘지는 전자업체고, 텐소는 자동차 업체라 직종때문에 훨씬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한국은 개인에게 맡기는 범위가 넓고 자유도가 높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큰 반면, 일본은 분업화가 잘되어 있고, 회의를 많이 해서 개인이 큰 책임을 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동문회 활동 소개

<2022년>

진로정보교류회 (2022년 8월 27일)

진로 소개 및 네트워킹 파티: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 & 여전히 진로/이직 고민이 많은 동문들께서 유익했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제4회 동문의 밤 (2022년 11월 19일)

제2대 운영위원회 소개 및 정기 송년모임

<2023년>

국립국제교육원

국비장학생 네트워크 한림원 소개, 동문회 예산 지원방법 논의

주한일본대사관

일본학술진흥회(JSPS) 국내 모임 소개, 카나자와 대학교의 일본유학생 커리어 추적조사 연구 협조요청, 제3차 귀국유학생총회 한국대표로 참가

대내 활동

동문회 소식지 발간, 제5회 동문의 밤 일정 확정, 동문회 회칙 정비, 수집 명함 관리방안 마련, 연락처DB 점검 및 현행화, 동문회 단톡방 현황 파악, 동문회 계좌 개설



다가오는 이벤트

< 진로 정보 교류회 >

날짜 : 2023년 7월 8일

장소 : 서울 강남(추후 공지)

< 제5회 동문의 밤 >

일시 : 2023년 11월 25일

장소 : 서울 코리아나호텔

<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동문회 홈페이지 >

<https://hanilgong.notion.site/462ab0aebb0848bbb426d842e046d9a0>

일본문화원 리포터는 어떤 활동을 할까?

글·사진 : 김동진, 김상학, 이어진
일본문화원 리포터 8기





일본문화원 리포터 8기 수료식

안녕하세요! 일본문화원 리포터 8기 김동진, 김상학, 이어진, 임니다! 🎉 앞으로 활동하실 예비 리포터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본문화원 리포터는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일본문화원 주최 행사, 관련 소식을 취재, 전달하는 리포터로서 한국 내 일본문화, 일본의 다양한 매력, 소개하고 싶은 일본 소식 등을 취재하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카드뉴스, 영상, 기고문 작성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소개하는 활동입니다.

특기 분야별로 나눠져서 활동하지 않고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럼 8기 리포터들이 제작했던 콘텐츠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아요.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게 될까?

일본문화원 SNS에 투고되는 카드뉴스

일본문화원 리포터가 하는 메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카드뉴스를 매달 제작합니다. 한달에 한번 진행되는 교류회에서 피드백을 주고 받고, 완성된 콘텐츠는 일본문화원 공식 SNS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에 업로드 됩니다.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 촬영 & 편집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이면 어떠한 주제라도 OK! 직접 촬영, 편집하여 담당자님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완성된 콘텐츠는 일본문화원 SNS에 업로드 됩니다. 일본문화원 리포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듯 '리포터'로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전달해보고 싶은 일본문화 내용을 기획하거나, 일본문화원의 다양한 행사를 소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



일본의 새소식 원고 작성

일본의 새소식은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웹 매거진입니다. 카드뉴스나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나 글쓰기를 좋아하고 특기인 리포터가 원고를 작성합니다. 몇번의 퇴고를 거쳐, 일본의 새소식에 소개됩니다. 📄 ✍️
일본문화원에서는 일본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리포터가 빠질 수 없겠죠? 8기 리포터들은 한일포토콘테스트, 신년일본문화소개전 등 각종 행사 및 전시에 빠짐 없이 참여하고 취재 활동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취재하고 행사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께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꿀팁! 🍰💡 콘텐츠 제작 시 도움이 되었던 것들 빠질 수 없겠죠? 🐻

카드뉴스 및 새소식	영상
1. 기획 및 자료수집	1.영상 기획 및 구성
2.글 콘티 작성	2.촬영
3.디자인 콘티 초안 제작	3.자막 및 CG / 일러스트
4.최종 디자인	4.편집
5.피드백 (전체)	5.피드백 (전체)



일본문화원 리포터 8기 대표 캐릭터 '하치'

일본문화원 리포터로서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수가 8기인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여덟(八: 하치)과 벌(蜂: 하치)의 발음이 같은 벌 캐릭터 '하치'를 만들어 활용하였습니다. 🐝

카드뉴스 제작과 비슷하지만 '인스타툰'을 통해 리포터가 직접 경험한 일 본에 대해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글로 접하는 콘텐츠도 매력있지만, 만화를 통해 전달해보니 전달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



일본문화원 리포터를 모델로 그린 인스타툰

일본문화원 리포터는 어떤 교류를 할까?

여러분들은 외국인들과 이야기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일본어를 배우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인터넷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어려움 없이 물건을 살 수 있고, 일본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로컬 맛집에도 겁먹지 않고 갈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직접 대화하며 일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일본문화원 리포터가 딱! 입니다 😊 일본문화원 리포터 기간 중, 민간 외교관으로서 한 2가지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 JENESYS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한국청년방일단

일본문화원 활동의 꽃 🌸이라고 할 수 있는 JENESYS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일본 외무성이 주관하고 일한문화교류기금이 운영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청소년 교류사업입니다. 일본문화원 리포터는 작년 9월, 약 6박 7일 동안 일본을 방문해 일본 외무성, 교토의 교탄고시 시청, 단교료쿠후 고등학교 등 기관과 학교를 방문해 일본 분들과 교류했습니다.

외무성에서는 한일 공공외교를, 교탄고시에서는 교탄고시와 충남 서산시가 어떻게 교류를 맺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단고료쿠후 고등학교 친구들과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밖에도 자유롭게 일본을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평소 관심있었던 일본 문화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집니다! 일본 방문 프로그램을 다녀와 배우고 느꼈던 것을 영상과 카드뉴스로, 나아가 관련 글이 언론사 재팬코리아데일리에서 기사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01



02



03

01~04 단고료쿠후 고등학교 방문 & 단체사진
05~06 KJAF 동창인의 밤

KJAF in Seoul 'JENESYS 동창인의 밤'

KJAF(Korea Japan Alumni Forum)는 JENESYS 청소년 교류 사업에 참가한 한국 측 동창회 조직입니다! 일본문화원 리포터와 Cool Japan 리포터로 작년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동창회가 개최되었는데요. JENESYS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며 각 기수의 참가자들이 모여 방일단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JAF는 현재 3기를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한일 교류를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05



06



04

어떤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할 것 같지 않나요? 2023년도 7월부터 일본문화원 리포터 9기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기수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